

살라맛스즈브?(평안하십니까의 키르기즈어)

밝은빛 비추리 가족은 모두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온지 벌써 두 번째 겨울은 맞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엄청난 눈과 아이들의 잦은 고열 감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두 번째 맞는 겨울엔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땀을 흘려 벗어버릴 수 있는 따스한 집과 아이들의 감기에 대처하는 경험에 나오는 여유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섬길 수 있는 그분의 나라의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엘딕클리닉이야기



약 1년반년 전에 팀과 함께 시작한 메디컬 클리닉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 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닥터 린다는 늘 말합니다. '메디컬은 이 땅의 복음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이다' 비취택시 안에 서쪽 도심 가에 자리 잡은 엘딕 센터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열악한 의료영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진찰하고 처방하고, 현지인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의료라는 효과적인 통로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엘딕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인 의사들이, 키르기스인들 마저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 이 땅에서 진료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료 후 조심스레 기도를 해주어 되냐고 동의를 얻은 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사역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메디컬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현지인 의료진들을 훈련시켜 언젠가 모든 외국인이 이 땅에 빠져나간다고 하여도 질 높은 의료수준과 함께 강한 복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매주 3번 현지인 의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지키스탄, 나이지리아에서 온 의사들



도 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의료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기독교 의료인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센터에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아프칸등에서 온 시리아 난민들과 청각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수도 비쉬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키르기스탄의 남쪽 바트켄트에 두 번째 클리닉이 세워지기 위하여 리서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정기적으로 세 번 이상 이동식 진료차량 형태로 의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나가 진료하며 복음을 나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엘딕에서 일하는 약 15명의 현지인 직원들은 대부분 지역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Core Group 훈련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리더십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순위 145위의 키르기스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유일한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경영이라는 영역에서 이들을 섬기고, 탁월한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밝은 빛 선생은 두 아이의 육아를 잘 감당하면서도 열심히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공을 살려 클리닉에 나와 리모델링을 통해 산뜻한 느낌의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아이들 시온(만5세) 나엘(만3세)이는 행복한 하루 하루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켜보며 이곳에 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와 또한 함께 해준 고마운 동역자 및 후원자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밝은빛 비추리 가족 드림

기도제목

1. 밝은빛비추리 가정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소서
2. 엘딕이 사역들에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하소서
3. 내년에 둘째가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소서